

# 한국유학사 연구의 뚜렷한 이정표

최영성 지음 《한국유학사상사》(전5권)

금장태

서울대 교수 · 종교학

1997년 최영성씨의 《한국유학사상사》 다섯권이 완간되어 나온 것은 20세기를 결산해야 하는 시기에 유학분야만이 아니라 한국사상 분야의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마치 단편소설만 발표되고 수십년 사이에 중편소설이 겨우 몇편 나와 있는 빈약한 문단에 목격한 대하소설 한질이 간행되는 충격이라고나 할까. 저자는 이 책을 위해 1985년부터 집필을 시작하였다 하니 12년 세월의 공을 쌓아 이루어낸 역작임에 거듭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역사와 더불어 성장

저자도 이 책의 제1권 첫머리에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1922)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1949)를 거쳐, 이병도의 《한국유학사》(1987)에 이르기까지 이미 간행된 한국유학사의 저술들이 지닌 의의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학사 저술들이 거의 황무지에서 개척한 업적이지만 소홀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우리 역사와 더불어 성장해온 유학사를 치밀하게 구성한 통사로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유학사상사》 다섯권은 그 분량의 방대함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7편 37장 136절로 구성된 그물처럼 빈틈없는 체계와 장, 절 하나하나가 본격적인 연구논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을 우리 시대 한국유학사 연구의 집대성으로서 인정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 책 다섯권은 저자의 야심찬 구성과 깊이 있는 문제의식 및 치밀한 논증적 서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속에 읽어내려가게 한다. 그동안 간행되었던 한국유학사들이 대부분 한문투성이거나 자료의 단조로운 집합으로 전공하는 사람들만이 인내력을 가지고 읽어내려갈 수 있었지만, 이 책은 명쾌한 문장으로 한국유교를 그 시대의 상황과 논리에 밀착하면서 오늘에도 의미있는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전달해주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책이 지닌 전반적 특징과 장점을 몇가지 꼽을 수 있다. 그 장점은 아직도 더욱 개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도 한다.

첫째, 다루고 있는 시대범위가 상고대에서 현대까지 걸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유학사 저술보다 시간적 폭을 최대한 넓히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한권으로 다루어 고대에 충실한 점에서는 독보적이며, 20세기의 유교를 거의 한권 분량으로 다루어 유학사의 새로운 시대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유학사를 유학사상사나 유교문화사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나 사회

《한국유학사상사》는 그 분량의 방대함 뿐만 아니라 그물처럼 빈틈없는 체계 속에 본격적인 연구논문의 수준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책이 우리시대 한국유학사 연구의 집대성으로 인정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사와의 관련성을 풍부하게 다루고 사회적 기능에도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삼국 사회의 정치체제와 유교사상의 관계나 조선 시대 사림과 붕당정치의 유교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에서 돋보인다.

셋째, 유교사의 각 시기적 성격과 학파의 분류 및 유학자의 인물별 연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사림파와 훈구파를 대조시키고, 성리학과 탈주자학을 대비시키고, 예학에서 도학과의 예학과 실학과의 예학을 병렬하고, 양명학과 천주교에서 수용과 비판을 대조하며, 일제하 유학에서 민족주의적 유교관과 일본어유학자의 왜곡된 유교관을 대치시키는 점은 유학사를 역동적으로 해명하는 예리한 안목이라 하겠다.

또한 성리학과 실학의 학파적 분류와 발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금까지 유학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무수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큰 업적으로 저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각고의 노력을 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넷째, 한국유학사를 한국내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유학으로부터 수용과 일본유학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를 남북국시대로 파악하여 발해의 유교사상을 다룸으로써 한국유학사의 공간적 폭을 최대한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고려전기에서 북송 도학의 수용사실은 성리학 수용시기 문제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백제시대와 임진왜란후 한국유학이 일본에 전파되는 상황이나, 해방후 일본의 한국유학연구 동향까지 소개한 것은 좋은 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유교·불교의 교류나 유교·천주교의 교섭을 다루어 다른 종교사상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도 유학사의 범위를 넓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한말 성리학의 다양성 부각하지 못해

다음으로 이 책의 많은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부분에서 진진진미한 유학사의 서술을 위해 아쉬운 점도 몇가지 지적해 볼 수 있다.

우선 저자는 제1편 '서설'의 2장과 3장에서 군자국이나 기자조선 등 한국유학사 시원문제를 독립된 편으로 다루지 않고, 한국유학사 서술을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하는 자신의 사관(史觀)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유교사상을 나라별로 각각 다루고 이 시대 유교사상의 전반적 성격

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유교의 레가 가볍게 언급되고 있을 뿐, 제천을 비롯한 제사의례를 통한 유교문화의 실천양상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과, 조선후기의 예학 문제는 매우 상세한데 비하여 조선초기의 국가의례는 너무 가볍게 언급하고 말아 유교사회에서 의례가 지닌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크다.

선조때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된 사실을 '목릉성세(穆陵盛世)'로 일컫는데, 이 시대의 문운(文運)은 융성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극히 쇠잔하여 울곡도 사회적 위기를 지적하고 경장을 주창하였던 점에서 '성세'라는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시대 유학자 28명을 '퇴계·울곡 전후의 명유'로 한데 묶고 있는데, 학맥과 연원을 밝혀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조식(南冥 曹植)은 그 속에 병렬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큰 인물이다.

나아가 17세기 중엽 이후의 유학에서 송시열을 독립시켜 다루고 다른 유학자들은 '당시의 일반 명유'로 묶어두기보다는 허목을 송시열과 대조시키면 학설에서나 논쟁적 관계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의 경학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는데, 성해운·신작을 김정희와 더불어 실학의 고증학파로 분류한다면 홍석주·서매

이 책을 말한다

# 신선한 생명의 샘물 같은 글

## 《노평구 전집》(전5권)

이기백

한림대 명예교수 · 한국사

순의 주자학적 경학과 대비될 수 있고, 또 실학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대 유학에서 위정척사론을 표출시킨 반면에 이른바 한말 성리학은 분산되어 그 이론의 다양성과 독창성이나 교차하던 논쟁의 격렬함을 생생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감이 든다.

마지막 장에서 현대 유학자·유교사학자들을 다루면서 아직 살아있는 인물들을 언급한 것도 통사적 서술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학사를 저술한 분들이 자신보다 한세기 앞에서 끝맺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론을 기다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억하기 위한 조심성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돌아보면 최영성씨의 《한국유학사상사》 다섯권은 20세기 한국유학사 연구의 결정판이 되고, 21세기 한국유학사 연구의 출발점에 뚜렷하게 서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 《한국유학사상사》(전5권)/최영성 지음  
아세아문화사/A5신/각 450면 내외/각 12,000원

현대 한국에서 종교가 짊어져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덕적 양심의 보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일관되게 외쳐온 분이 곧 이 전집의 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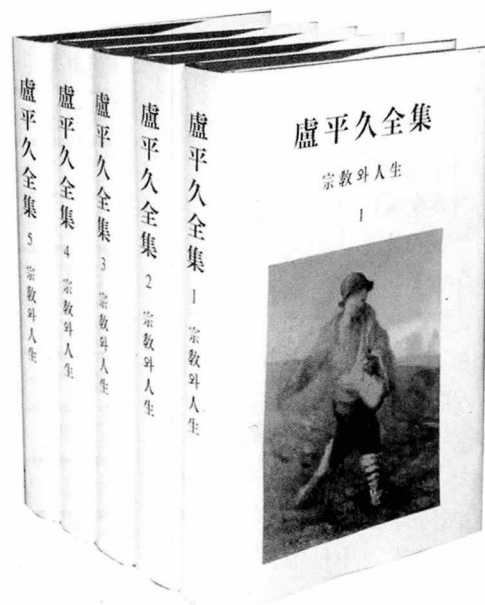
저자는 간행사의 첫머리에서 "2차 대전 후 해방과 함께 서울의 정치적 광란 속에서 나는 종교에 의한 국민의 도덕적인 자각을 급선무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 정착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저자가 1946년에 창간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행하여온 《성서연구》는 이같은 저자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수한 종교적 개인 잡지로서 《성서연구》는 금년 5월 현재 476호를 간행했다. 저자는 지금 85세의 고령이지만 아직도 계속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서연구》의 권두문을 주로 모아서 엮은 것이 《종교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간행된 이 다섯권인데, 이 다섯권에 일반 국민을 향한 저자의 주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혹은 이 책이 딱딱한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치·가정·문화 등의 구체적 문제에 관련된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또 넓게는 인류 전체의 모든 부문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저자는 문장을 아름다운 문구로 수놓을

**이 책이 딱딱한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는 우리나라 사회·정치·문화의 구체적인 문제, 넓게는 인류 전체에 관한 글이 실려 있어 신선한 생명의 샘물 같다.**



줄을 모른다.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명쾌하게 한다. 이것은 절대자 이외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자의 신앙의 타이겟지만, 또 참된 의미의 애국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저자는 배재중학 3학년 때에 광주학생운동에 관여하여 1년간 투옥되었다. 출감 후에 학업의 길이 막히자 서울의 토막 빈민촌에서 무산이동의 교육에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인생 문제에 고민하던 저자는 《성서조선》을 간행하던 김교신(金敎臣)의 지도로 기독교 신앙운동에 전념하고, 일본에 가서 무교회 계통의 스카모토(塚本虎二)에게서 성서공부를 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자 1946년에 《성서연구》를 창간하고, 일요일마다

성서강의를 해왔다. 저자의 깊은 민족적 사명감이 이같이 오직 한길을 걸어오게 한 것이다.

저자의 전집은 더 많이 계속해서 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관계가 깊은 글들이 이 《종교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묶여진 다섯권이다. 민족적인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이 책에서 신선한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 미리가 본 21세기

-21세기는 이렇게 바뀐다-  
현원복 저/ A5/ 245P/값 6000원

정보통신 ◆ 생물공학 ◆ 첨단 기계기술 ◆ 새로운 소재  
첨단 교통기술 ◆ 대체 에너지 ◆ 거주환경의 개선  
인류의 우주진출 ◆ 환경기술

검지사 과학 기술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3  
TEL 335-1985, FAX 335-1986

## 表面의科學

아기다 요시오 저/백낙승 역/값 8,000원

## 중·소형 소각로

김향원 저/값 18,000원

## 全世界規格事典

국제규격 연구회 편/값 18,000원

## 原子力의 政治經濟學

T. 프라이스 저/박정택 역/값 15,000원

## 러시아 科學紀行

김역식 저/값 7,000원

표면의 개념/원자와 분자/액체와 콜로이드/금속의 표면/고분자의 표면/생체의 표면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당국자와 실무자 모두를 위한 소각로 설치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서

국제규격(ISO, IEC 등) 약 350건, 판공서 규격 약 100건, 국가규격 등 주요 해외단체 규격 600여건을 수록

원자력의 전반적인 문제, 즉 기술문제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군사·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편견없이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초대 러시아 주재 한국 과학관이 살펴 본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의 현황과 예견되는 21C 신기술들 및 러시아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검지사 과학 기술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3  
TEL 335-1985, FAX 335-1986